

2017년 5월 17일, 구좌읍 덕천리 김차순씨 덕, 이현정 조사  
김차순(여, 1943년생, 구좌읍 덕천리)

- 줄거리: 제보자가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 돌아오는데, 그 시각에 불이 켜질리 없는 물고래 간에서 비춰지는 불을 목격한다. 그때서야 제보자는 이 불이 도깨비인 것을 알아차리고 도깨비불이 실제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.

**[조사자]** 덕천에는 저 도체비 나온덴 안 험니까?

**[제보자]** 옛날, 옛날 4·3사건 때.

**[조사자]** 예, 얘기 해줍서.

**[제보자]** 나가 그거는 알지. 옛날 우리가 두린 때. 밤이라도 놀레 가지. 놀레엔 허는 건 밤이 나가는 것굴아 놀레엔 허여. 나가그넨에 이제 저 목 곁에 놀아댕기다가. 놀다가 들어올 적에 밤에. 옛날 이제 그 때는 보리 쏄 보리밥만 먹는 시절이라. 게문 보리 쌀을 우리가 이 동넛 보리 깎으는 디가 엇으니까 송당을 지영 자주 나들주. 경 해연 깎아당 그걸 보리밥만 행 먹곡. 또 물7래가 잇어 옛날. 이 큰 돌로 영 돌아가는 거. 저 브름부께 7추록 돌아가는 것이 잇이민. 그거 밀리멍 소리 허멍 빙빙 돌민 그 보리, 이제 물 적저그네 그래 노른 껍덕을 벗으면은 이제 그 것을 흐김 므른 듯 해야 이제는 7래에 검피거나.

아, 이젠 놀단 저 목 곁에 간에 우리 서너이가 간에 놀단에 오단 보난. 그 물7래엔 험 거 잇어낫주게 저디. 우리 동네도 두 밧디가 물7래가 잇언. 영영 돌리민 그 보리 영 똥글락허게시리 노민 이게 영, 저 껍덕 뱃겨지곡. 그 오단 보니까 그디는 아무런 그 시간에 그디 앓아그네 불 비출 수가 엇지. 그런데 딱 보니까 그, 물7래엔 험 디 딱 불이 켜진 걸 본 거라. 나가, 딱 험 번 밧어.

아, 나가 그때는

“아, 요 것이 도체비로구나.”

나는 이 사실은 도체비다 도체비다 몰랐는데 아, 이 현실을 보니까

“아, 요 거는 도체비였구나!”

그거를 그때 느꼈어. 험 번 딱 밧.

- 핵심어 : 덕천, 도체비, 밤, 놀레, 물7래, 불, 도깨비, 도깨비불